

저변 넓혀가는 映畫도서 출판

영화운동 표방한 이론서 등으로 활기... 번역서 편중은 아쉬움

제작자올화가 물고온 邦畫의 표현영역 확대, 소련을 비롯한 일련의 동구권 영화 수입·개방 등으로 최근 우리 영화관의 활기가 두드러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화의 표현자유가 性愛영화의 급증을 초래하고 있고, 일본영화까지 상륙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활기를 斜視적으로 폄하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영화가 요즘처럼 일반인의 관심과 주목을 끈 적은 60년대 이래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관의 이같은 활기와 맞물리더라도 하듯 서점가에도 다양한 영화학 관련도서가 다투어 선을 보이고 있다. “번역을 포함하여 한국어로 된 영화책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 영화인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일종의 상식이었는데, 일련의 ‘시네마마크’를 비롯한 알찬 내용의 단행본들이 연이어 출간되면서 그간 불모지로 알려졌던 영화출판의 본격적인 개간이 시작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우리 영화의 '제자리 찾기' 노력

현재까지 나와 있는 영화책 가운데 대중을 차지하는 것은 영화진흥공사에서 간행된 도서들이다. 특히 20권에 달하는 ‘영화이론총서’시리즈는 이 분야의 가장 체계적인 도서목록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영화학입문」(장 폴레 외/김정옥), 「영화예술로서의 성장」(아더 나이트/김무현 외) 등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영화계 종사자를 위한 전문서로 구성돼 일반독자들로서는 접근이 용이한 편이 못된다.

따라서, 이보다는 최근 한두해 사이에 상업출판사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간행된 단행본 및 무크가 더 많은 주목을 끈다.

이 중 가장 최근에 나온 「세계영화사」(J.C. 엘리스/변재란, 이론과실천)가 대표적. 영화사의 전개 속에서 영화자체의 특성을 밝히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데, 미학, 테크놀로지, 그리고 정치경제적 의미에서의 영화사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현재까지 간행된 영화사 가운데 가장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고본의 지나친 소략함을 드러내기는 하나 「映畫史」(제라르 베몽/조병옥, 탐구당)가 영화의 발생과정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하고 있고, 「영화세계사」(로 뒤카/황왕수, 다보)도 1974년 이후 판을 거듭하며 현재까지 팔리고 있다.

한국영화사에 관련된 책으로는 해방 이전

까지의 한국영화사를 개괄한 「한국영화발달사」(유현목, 한진출판사)가 유일하게 유통되고 있는데 현재 3판을 기록중이다. 특이하게는 「소련영화사 I」(J.레이다/배인정, 공동체)가 관심을 끈다. 러시아혁명을 분수령으로 ‘어릿광대가 아닌 명백한 교사’로서 세계영화사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련영화의 역사와 의미를 소개함으로써, 헐리우드식 오락영화에 길들여진 우리의 의식을 일깨우는 효과를 갖는다.

일반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관계 책들이 최근 다양하게 출판되고 있다. 번역서에 편중된 아쉬움은 있지만, 교양으로서의 영화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이론서들이 다투어 선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영화운동을 표방하는 일련의 시네마마크까지 가세, 영화도서 출판의 저변이 점차 확충되고 있다.

「영화의 이해」(L.자네티/김진해, 현암사), 「영화-형식과 이해」(L.자네티/김학용, 도스토예프스키), 「영화개론」(이영일, 한진출판사), 「영화란 무엇인가」(한국영화학교수협의회, 지식산업사) 등은 일종의 개론서. 이 중 앞의 두 책은 모두 자네티의 「Understanding Movies」를 번역의 대본으로 삼았으면서도 목차의 구성이나 부피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영화의 이해」가 서지적 성실성이 뛰어난 편이다. 국내필자에 의해 씌어진 뒤의 두 책 중 「영화란 무엇인가」는 김정옥·유현목·김수용 등 현역 영화학교수들이 항목별로 분담 집필한 공동작업이란 점이 특징적이다.

‘영화운동’ 표방하는 시네마마크도

본격적인 영화이론서로는 지난해 봄에 처음 나와 다섯 달만에 재판을 찍어낸 「現代映畫理論」(D.안드류/조희문, 한길사)을 대표적으로 꼽을 만하다. 조형주의와 리얼리즘 등 대표적인 현대영화이론을 사조별로 소개하는 안내판 구실을 하는데, 현재 3판째가 나와있



종래 영화진흥공사에서 발간된 것들이 주종을 이루던 영화도서 출판이 최근 일반출판사들의 활발한 참여로 점차 다양화하고 있다.

는 「영상미학」(앙리 아젤/황왕수, 다보)과 함께 영상의 본질을 미학이론의 사조적 변천을 통해 해석하고 있다. 「예술로서의 영화」(랄프 스티븐슨 외/송도익, 열화당)는 특히 ‘영화언어’에 중점을 둔 영화감상과 영화평론의 안내서로 씌어진 책이다.

한편, 위와 같은 일반적 의미에서의 영화이론서들과 함께 최근 들어 부쩍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 일련의 시네마마크로 대표되는 ‘영화운동’ 도서의 출판이다. 영화평론가 이해영씨는 이 분야의 활발한 움직임에 대해 “영화가 가진 막강한 대중설득력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 젊은 영화인들의, 영화의 ‘운동성’과 ‘민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표현”이라고 해석하면서 “교육매체로서의 영화론 전개”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을 주도하는 것이 ‘서울영화집단’과 ‘레디고동인’. 1982년 창립된 서울대 ‘알라성영화연구회’가 모태가 된 것으로 알려진 전자가 「새로운 영화를 위하여」(학민사) 「영화운동론」(화다)을 펴냈고, 1986년 시네마마크 「레디고」1집을 발간함으로써 결성된 후자는 지난해 가을 제2집을 펴냈다. 한국영화에 대한 비판적 감증을 비롯하여, 제3세계 민중영화운동의 소개, 나아가 우리 영화의 바람직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국내외 연구자들의 논문을 편집한 것이 공통된 특징이다.

번역서로는 앞의 책들처럼 역시 앤솔로지의 성격을 띠고 있는 「혁명영화의 창조」(우카마우집단/양운도, 한겨레)가 나와있다. 볼리비아의 영화운동그룹인 ‘우카마우’의 경험을 소개함으로써 영화의 아름다움에 대한 배려와 감동을 상실하지 않고도 어떻게 올바른 정치의식과 결합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현실

을 변혁하는 ‘무기로서의 영화’의 역할을 천착한 책이다.

그밖에 「한국영화운동」 제1집(오늘)은 임권택감독 한 개인의 작품세계와 영화사적 의미를 집중적으로 탐구한 젊은 영화인들의 평론집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국내필자에 의해 씌어진 책은 드물어

그러나, 위에서 보는 것 같은 영화출판의 다양한 활기에 어떤 문제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로 들 수 있는 문제가 번역서에의 지나친 편중이란 점이다. 이는 이제 겨우 영화출판의 초입에 들어선 우리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일단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으나, 국내필자에 의해 씌어진 ‘읽을 만한 영화책’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반독자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할 영화평론집조차도 김종원(「영상시대의 우화」)과, 이미 고인이 된 하길종(「영상, 인간구원의 메시지」 「사회적 영상과 반사회적 영상」) 외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젊은 영화인들 사이에 일고 있는 영화운동론의 제기 또한 무크를 통한 논의의 비정기성 내지는 산발성이 하나의 단행본적 연구성과로 집적되는 단계로 지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종원씨의 적절한 지적대로 출판사들이 영화서적 간행에 보다 적극적인 시도를 보이는 자세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대학입시 때마다 연극영화과가 전국최고의 경쟁율을 기록할 만큼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 최근의 영화출판의 활기는 여전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기 때문이다.

—강철주 기자